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2024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일정

2월 2일(금), 중등부·청년부를 시작으로

부서	주제	주제말씀	일정	장소
영·유아부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롬 10:9-10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유치부	뜻을 세운 아이들	롬 12:2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유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롬 12:1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초등부	나는 믿음의 사람	히 11:1	2월 23일(금)-24일(토)	서울교회
중등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창 4:7	2월 2일(금)-4일(주일)	아가페 타운 서울교회
고등부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고등부	히 11:1-2	3월 1일(금)-2일(토)	서울교회
청년부	BREAK TABOO	행 4:9-10	2월 2일(금)-3일(토)	아가페 타운
사랑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복	마 5:1-12	2월 17일(토)-18일(주일)	서울교회

## 2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

2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가 2월 첫 번째 토요일인 2월 3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서울가족 새벽기도회에 가족 모두 나오셔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제목과 가지고 온 가족이 위로받고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새벽기도회 반주자 지원

찬양위원회(위원장:이민호 장로)는 새벽기도회 시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시실 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전 5시 10분부터 시작하며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하루 주 1회(요일 조정 가능) 하시면 됩니다.

문의 및 지원은 이민호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함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감정헌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김재용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2024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 2월 16일(금)까지 /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오윤걸 장로)는 2024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신앙생활에 모범적이며 교회봉사와 청년부에 출석 중인 대학생으로 봉사부서와 청년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2월 16일(금)



2023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부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 25일 저녁 찬양예배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 한가정한선교사·농어촌100교회·Vision2030 후원자 명단

###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노문환·장정화(1/2) 양춘경·이인숙(1) 차도훈·남태영(1/2) 김승록·전미경(1/2) 장석남·강남희(1/2) 양옥자(1) 이영조·이영자(1/2) 채교천·정금희(1) 심상필(1/2) 송영재·함정희(1) 이신영(1/2) 이상섭(1) 이진순·박광훈(1/2) 한나전도회(1)

###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노문환·장정화(1/2) 양춘경·이인숙(1/2) 차도훈·남태영(1/2) 김광태(1/2) 김승록·전미경(1) 장석남·강남희(1/2) 이영조·이영자(1/2) 채교천·정금희(1) 이신혜(1/2) 윤춘섭(1/2) 이진순·박광훈(1/2) 한나전도회(1)

### Vision2030 후원자

장석남·강남희(2) 노문환·장정화(2) 양춘경·이인숙(5) 차도훈·남태영(1) 김숙자(1) 김재용·김재령(3) 박광훈·이진순(1) 송인덕·이홍숙(2) 심상필(1) 유외숙(1) 이신재(5) 이영조·이영자(2) 채교천·정금희(1) 최임수·노인숙(1) 한나전도회(3) (다음 주 계속)

#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롬 15:14-21)



손달익 위임목사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자기 신앙을 소개하며 자신이 믿는 중요한 교리적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한 내용들로 1-11장까지는 많은 교리적 내용을 설명하였고, 12장부터는 실천적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반부를 교리 편으로, 후반부를 실천 편으로 분류합니다.

본문은 주로 교회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교회는 헬라어로 'ecclesia'인데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총회, 시민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이 용어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는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 공동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바울이 그렇게 교회 사랑에 일생을 바치고 스스로를 교회 일꾼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은 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 엡 4:12)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위한 일꾼된 것을 자기의 자랑이요 영광인 동시에 자기 십자가로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은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달려갈 길도 다 마쳤고 믿음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했다'고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일했습니다.

## 1. 서로 유익하게 하는 사역

사도 바울은 후회 없고 만족한 교회생활의 비결을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1, 2절) 그래야 교회생활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롬 14:1),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롬 14:13) 다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도시였고 제국의 수도답게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교회도 다문화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출신들이 로마교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시기인 AD 49년 유대인들이 모두 로마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AD 54년 추방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 보니 당시 로마교회는 이미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교회로 성장해 있었고 유대인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교회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생겼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심지어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표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오

늘 하나님의 나라에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필요하고 이런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 2. 일꾼으로 사는 삶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정체성을 '일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교회의 일꾼 등으로 불렀습니다.(16절) 흔히 교회를 방주나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이 두 표현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의 교회는 많은 시대적 사명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전도, 구제, 사회봉사 등의 교회적 사명이 있고, 또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회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국민교육이나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해방 후 혼란기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착과 반공운동의 선두에서 일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확산에 기여했고, 지금은 어떻게 평화통일을 이룰 것인가의 문제와 저출산 문제, 동성애의 확산이나 문화의 타락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교회의 숙제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역사적 과제들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배, 심각한 가난의 문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민중봉기와 사회적 불안정, 만연하는 여러 질병의 확산 등 식민지 백성의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그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자기 사명의 핵심임을 명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먼저 복음, 먼저 십자가, 먼저 예수의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로마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유대인들은 이미 세상 바뀔 줄도 모르고 기득권 고수를 위한 교만한 아집에 집착하고 다민족 세력들 사이의 주도권 갈등, 편협함 등으로 신음할 때 바울은 '지금도 우리가 이런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마음으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의 자세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 3. 은혜만 자랑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17절). 본래 바울은 자랑하는 일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셔서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바울로서는 온 세상의 교회들이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는 것도 자랑할 만하고, 그의 제자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것도 자랑거리였고 그의 전도 업적이나 신학적 권위도 자랑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할 뿐입니다. 숲을 지나온 바람에게는 숲 냄새가 나고 꽃밭을 지나온 바람에게는 꽃내음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지나왔으며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야 하겠습니까? 사람 냄새, 욕심 냄새, 세상 냄새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향기가 풍겨나도록 날마다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끝내 교만과 욕심으로 점철된 모습만 보인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 되고 나타나고 선포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숲을 지나온 바람에게는  
숲 냄새가 나고  
꽃밭을 지나온 바람에게는  
꽃내음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지나왔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하겠습니까?

## 필리핀을 아버지의 품으로...

2월 8일(목)~13일(화) 필리핀 불라칸 바티아

### 청년부 비전트립이 청년부 부흥의 씨앗이 되길...



소준 성도 (청년부)

2023년 청년부 회장을 맡은지 오래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회장직을 수행하며,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왜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회장직을 맡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교회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들이 청년부를 이끌어준 것에 대해 감사했고, 제 인생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의 카이로스 훈련, 성경 읽기 모임, 주간 팀 모임, 아웃팅을 거치며, 성경 속 바울, 예수님, 디도의 삶을 통해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선교적인 삶에 도전받았지만, 제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교에 나서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 중에 필리핀 비전트립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회장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임원단을 마친 후, 선교를 주축으로 준비해나가는 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를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했지만, 나 자신과 주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

도 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앞뒤에서 도와주시며 같이 가자고 하셔서, 많은 기도 끝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니 저는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년부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 2024년에는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부가 어떻게 부흥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안팎으로 전하고, 청년부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지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갔듯이 저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필리핀 비전트립이 그런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장해라 성도 (청년부)

이제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자라 더욱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 세상을 뒤흔드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황폐한 낯선 땅,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말로 전해 듣고 있는 그 땅은 '정말 그 정도일까?', '이 시대에 그럴수가 있다고?'와 같은 생각의 연발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와닿지 않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저없이 비전트립에 지원하게 해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원들과 첫 만남때에 자기소개 문답지를 작성하던 중 '내가 생각하는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사리 답변이 떠오르지 않

았습니다. 여전히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기에 선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해주십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 팀원을 구성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합심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준비 과정에 있지만,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를 위해 준비 과정을 겪을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짧더라도 매일 비전트립을 위해 기도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은 제 하루하루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놓쳤던 것을 보게 하시고 작은 나를 되돌아 보게 하시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을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더불어 복음을 전하러 간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헤쳐나갈 난관 또한 많습니다. 또, 세상의 일들이 우선시 되어야 할 거 같은 압박과 한 인간으로서의 역량부족, 다른 때 느끼지 못

했던 시험들이 비전트립을 가야겠다고 한 이후로부터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전도여행 역시 항상 처음부터 매끄럽고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이번 선교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삶에서 돌고 돌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니 여러 시험들이 더 크게 닥쳐오고 있을거라는 믿음 하나로 날마다 감사로 승화하며 이 시험들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작은 변화를 주시며 가까워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매순간 함께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비전트립에 가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신 그 순간부터 제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내 양을 먹이라!



박성진 성도  
(청년부)

‘내 양을 먹이라’ 지 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년 전 군 복무 중 전역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전역을 하고 무엇을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던 중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당직사관이 저를 불러 오늘 일이 생겨 교회에 가는 인원 인수를 못 할 것 같으니 대신 갔다 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전역 후 계획한 대로 살기위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오랫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복귀하여 낮잠을 자던 중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의 환경은 너무나도 뜨겁고 물 한 모금 없는 가뭄에 먹을 것이 라곤 한 가지도 없어 보였고 갓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아무런 말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꿈이 반복되었고 저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저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사가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를 서울교회로 이끌어 주신 일이고 필리핀 비전트립을 가게 된 일입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와서 필리핀으로 비전트립을 떠나게 된 것은 저의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기에 교회로 부르셨고 비전트립에 함께 동역하기 위

해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비전트립을 준비하면서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기에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선교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비전트립을 위해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힘써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저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에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동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비전트립팀의 헌신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부족함 없이 잘 마무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지도 및 학교 공연과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이 샴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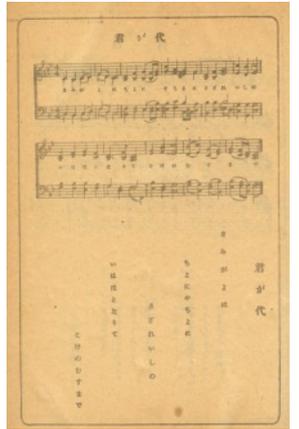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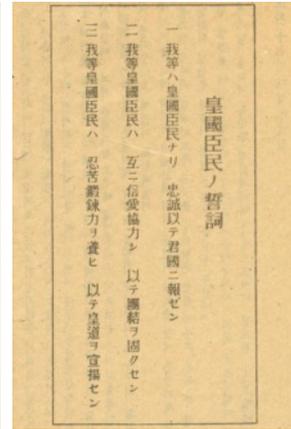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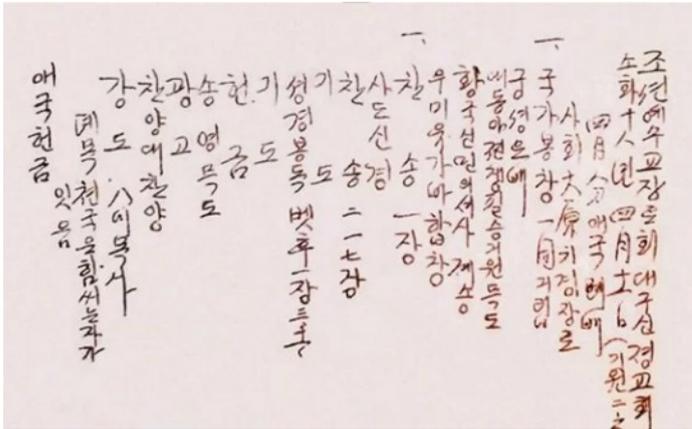


▲분유 나눔 ▼ 길거리 전도



이외에도 벽화 그리기, 사무실 페인팅, 장판 깔기, 예배장소 대청소 등의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 일본 기독교로의 흡수



장로회 지도요강에 따라 변질된 예배 순서:  
1부 순서에 국가봉창, 궁성요배, 대동아전쟁필승기원묵도, 황국신민서사  
계송, 우미유가바(일본 군가) 합창 순서로 진행됨 (출처: 국민일보)

1942년 장로회 총회가 개정한 신편찬송가 표지와  
그 안에 함께 수록된 황국신민서사와 일본국가인 '기미가요'

조직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일제 말 한 달이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기독교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다. 이 기간 한반도에서 조선기독교, 대한예수교 등은 사라지고 오직 일본기독교만 남았다. 이 일시적인 공백에 이르는 길은 각 교파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가결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이후 한국의 여러 교파들은 앞다투어 '일본적 기독교'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장로교를 중심으로 이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1939년 11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연맹'의 '장로회 지도요강'부터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요강에는 '국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국체의 의미는 '일본 국가의 정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일본은 신도의 최고신인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는 여신이 일본 천황가의 시조이며 이 천황가는 단 한 번도 혈통이 끊기지 않은 채 영원히 일본을 통치한다는 것을 일본의 국체로 삼았다.

'장로회 지도요강'은 이 국체에 걸맞는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 서구 의존적 사상을 버리고 일본적 기독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단순히 설교의 내용이나 종교 예식에 일본 신도식을 도입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단의 헌법, 교리, 의식, 기타 전반에 걸쳐 민족주의적 색채를 배제한 순수한 일본적 기독교가 되도록 하고, 성서와 찬송가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 관계 서적과 출판물도 국체에 맞지 않는 내용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먼저 찬송가와 성서가 '개정'되었다. 1942년 찬송가의 가사 삭제와 수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장로회 총회는 "신편찬송가 정정 사용 주지의 건"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1943년에는 '수정판 찬송가'가 출판되었다. 이 새 찬송가의 앞부분에는 일본 국가, 일본 국경일 노래들, '황국신민서사'가 수록되었다. 성서도 수난을 받았다. 1943년 4월에 조직된 '조선기독교 혁신교단'이 성서에서 유대 민족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출애굽기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삭제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신약의 사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성서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1943년 5월 한국 장로교의 헌법이 '개정'되었다. 교단의 이름부터 바뀌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이제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이 되었다. 한국 장로교의 명맥이 끊기는 순간이었다. 조선장로교단은 '실천요목'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말세, 심판, 재림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도 일제의 입맛에 맞는 해석으로 고치고 일본적 신학을 수립할 것, 그리고 구약성서의 유대사상이 비기독교적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해석 교본을 편찬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예배당을 새로 지을 때는 일본 양식을 고려하며, 예배와 집회는 일본 풍습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한국 장로교회가 일본교회에 흡수되는 이 과정이 매끄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1943년 7월에 평북노회가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이 합법적으로 조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총회의 해소를 선언한 총회장 김응순을 탄핵하면서 기존 총회를 유지하겠다고 나섰다. 장로교회는 총회 유지를 지지하는 '호법파'와 새 교단의 성립을 지지하는 '교단파'로 나뉘어 분쟁을 벌이다 1944년 8월에 무조건 통합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평북노회 중심의 총회 유지 세력이 교회의 변질을 막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 이 분쟁의 본질은 일제의 요청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다툼

과 주도권 경쟁일 뿐이었다. 분열되었던 약 1년간 양측은 일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종의 총성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1943년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이 탄생한 이후 한국의 장로교회는 일제의 어용단체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다른 교파들도 대부분 비슷했다. 조선 감리회도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이 되어 있었다. 결국 한국 교회의 각 교파들은 1945년 7월 19일 완전히 통합되어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이 되었다. 한국기독교에 대한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완결되었음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이 조선교단의 성립에 대해 일본 메이지학원대학의 서정민 교수는 교회의 자율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관제성과 최초의 창립 제안에서 창립 총회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던 졸속을 그 특징으로 꼽았다. 애초에 설립 제안 자체가 총독부 정무총감이 한 것이며 최고 직위부터 세부 조직 구성까지 관권의 의사에 휘둘렸다. 그리고 성립과정 어디에서도 교리, 제도의 차이, 교회 전통의 상이점을 극복하고 하나의 교회를 조직하는 과정의 고뇌나 타협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조선교단'은 오래가지 못했다. 교단이 창립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되자 남한 지역의 교회들은 '남부대회'로 모여 '조선교단'으로 인한 교파 합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이왕 하나로 합쳐졌으니 이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각자의 교파로 환원하였다. 이후 각 교파들은 내용에 힘써왔다. 감리회는 어떻게든 다툼을 봉합하였지만 장로회는 점점 갈등이 커져 1950년대에 이르러 대규모 분열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었다.

식사 제공



- 3교구  
임광호 안수집사·김정미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동정

- 사임:영유아부를 지도하시던 강남희 전도사님이 사임하였습니다.

갈렙찬양대 대원 모집

교회의 천국환송 예배 시 찬양을 담당하는 갈렙찬양대(대장:백도환 장로) 대원을 모집합니다. 갈렙찬양대는 2000년 9월 당회 산하에 상조위원회가 조직되면서 함께 창단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갈렙찬양대는 새벽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나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며 무엇보다 전도의 역할도 감당하는 귀한 찬양대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및 지원은 백도환 장로나 전광환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위원 모집

예배위원회(위원장:김혜언 장로)는 1부와 3부 예배를 섬기실 안내 위원을 모집합니다. 2024년 봉사자들의 부서가 많이 갈라지면서 현재 1부와 3부 안내 위원의 충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지원은 김혜언 장로, 1부 안내 부장(황병석 집사), 3부 안내 부장(김영선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구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교회 출입구에 쿠팡 로켓프레시백이 방치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교회 출입구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부서 혹은 개인이 교회 식품을 주문하실 때 사진과 같이 로켓프레시백이 교회 현관에 쌓이지 않도록 일회용 박스 포장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매체인 성경통독			
1월29일	월	출 13-15	창30	막1	예6	롬1
1월30일	화	출 16-19	창31	막2	예7	롬2
1월31일	수	출 20:1-23:9	창32	막3	예8	롬3
2월1일	목	출 23:10-25:40	창33	막4	예9-10	롬4
2월2일	금	출 26-28	창34	막5	요1	롬5
2월3일	토	출 29-30	창35-36	막6	요2	롬6
2월4일	주일	출 31-33	창37	막7	요3	롬7

성경일독 진도표와 구약과 신약,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하여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는 매체인방식 성경읽기표를 함께 게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하나님 앞에(Coram Deo) 순전하고 이웃에게 귀감이 되는 천국백성 되게 도우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 한가정한선교사·농어촌100교회·Vision2030 후원 운동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주님의 대 위임령에 적극 순종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계 열방을, 대한민국 복음화된 통일국가로 나아가도록 이 한 주간도 친히 운행하여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